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우영희<sup>1</sup>, 하규수<sup>1\*</sup>

<sup>1</sup>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igration Women on International Marriage

Young-Hee Woo<sup>1</sup>, Kyu- Soo Ha<sup>1\*</sup>

<sup>1</sup>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두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상(평균 3.40)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부의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인이 종교가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남편과의 학력 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5년 미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과 사무직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사회구성원이라는 통합된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로 나아가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an effor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how to offer social support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lead a more satisfaction life.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above the average(a mean of 3.40). By age, the women whose husbands were younger were more satisfied. The higher the husband's education, religion appeared higher in cases where the wife is religion, the women who resided in our country for less than five years expressed more life satisfaction. The husband was found in the case of highly professional and white-collar job, the higher the monthly income of the household and when they resided in their own houses. In this context, integrated in terms of international community members to migrant women requires systematic support policies moves forward to global countries.

**Keywords** : International Marriage, Life Satisfaction, Migration Women,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 1. 서론

### 1.1 연구목적

최근 우리 사회의 결혼제도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역사는 1980년대부터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동포와 중국 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히 진행되었다[48]. 199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서는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

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그 이후 베트남과 구소련 등 더욱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통계청(2014)에 따르면 2013년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의 비율은 중국(33.1%), 베트남(31.5%), 필리핀(9.2%)의 순이며, 중국 여성과의 혼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8].

국경선이 짧고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우리는 사실 외국인을 접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단일민족국가’ 자체는 사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전혀 함의하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에 대

\*Corresponding Author : Kyu-Soo Ha(Hoseo, Univ.)

Tel: +82-2-3443-3873 email: ksh@hoseo.edu

Received September 25, 2015

Revised (1st October 14, 2015, 2nd October 26,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순혈주의적 가치관은 다른 민족, 타문화에 대한 배타주의의 바탕이 되어 상대주의적 문화소통을 위한 여지를 남겨 주지 않는다[51].

아직까지 한국의 국민의식은 급속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속에서 다문화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1990년대 중반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결혼이다[34],[55]. 주로 한국사회에서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한국 남성과 경제력이 약한 아시아권 출신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55].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증가는 우리 사회를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을 촉진시켰으며, 특히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 그리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5].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과 이에 대한 만족도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베트남이나 몽골, 필리핀 등 특정국가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9], [17], [42]와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 [15], [36], [37]에 중점을 두어 왔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소수자(Minority)로서 다양한 차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삶의 질과 연관된다는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서로 다른 종족 간에 가족공동체를 이룬 다문화가족이 정착하는데 있어서, 이주여성은 가족관계, 문화적응,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형성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순혈 민족주의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기인한 배타적인 시선과, 혈연·학연·지연 등 강한 연줄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어린 자녀 양육의 주된 양육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1.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국제결혼 이주여성

#### 2.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의

국제결혼이란 국립 국어원 표준 대사전(1999)에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9].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2.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황

1990년대 이전까지 국제결혼은 드문 현상이었고 당사자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이루어진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미군과 한국여성,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본과 서구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 유형이었다[55]. 그러나 2010년 국제결혼 이주의 규모(SIZE)에서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71].

첫째, 한국의 국제결혼이민자 중에 중국인(조선족을 포함)과 동아시아인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성별로 보면 여성이 87.9%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결혼 이주자 및 국적취득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의 수도권에 60%이상 거주하고 있다.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방법으로 부모, 친척, 친구 등 지인소개로 만나는 비율이 49.3%로 가장 높다[25]. 다음으로 결혼중개업이나 통일교 등 결혼중개업자

를 통해서 만난 경우가 29%를 차지한다. 아시아 여성에 있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유형은 사적인 결혼중개업자나 종교단체, 친구, 친척의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짧고 서로간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상태에서 결혼이 성립되고 있다. 상업적인 중개업자들을 통한 결혼 방식은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는 결정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어 상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은 출발부터 상당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취약성으로 비롯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2세들의 학교 부적응 현상이 본격화되고 사회비용적 요소가 한국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2005)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증가의 원인을 사회전체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여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고관 현상이 나타나 결혼이민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57].

### 2.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

이주여성은 결혼이주를 통해 출신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초국적 가족을 형성한다[13], [50].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따른 특성에 의하면 고도의 성장을 일궈낸 한국은 노동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에서 노동인력을 유입하는 입장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매력적인 선택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16]. 일본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종교단체를 통해 만났다는 사람이 다른 경로보다 많다. 이는 한국의 남성을 선택하여 결혼하였다기보다는 한국과 한국의 종교를 선택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내들이라고 할 수 있다[8]. 주로 서구 남성과 이루어지던 필리핀 여성들의 결혼 이주는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입국하기가 쉽고, 해외취업중개사에 지불할 비용이 적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김이선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베트남,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이며 시부모를 모시고 봉사하는 며느리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12]. 또한 정기선 외(2009)에 의하면 필리핀의 결혼 이주여성은 일본의 결혼 이주여성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리핀의 결혼 이주여성은 스페인 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피부색이 검고 결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47].

한국문화 적용에 따른 특성은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 인신 공격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으며[35], 자녀교육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취득 전까지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한다[53].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원인은 막연한 기대의 결혼 동기, 결혼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 잘못된 배우자들에 대한 정보, 음주, 폭언, 폭력 등의 남편의 잘못된 일상생활 습관, 시부모나 시댁식구들에 대한 시집살이,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시댁식구들과의 갈등과 불화,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힘든 가사노동,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한국에서 느끼는 문화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보고되고 있다[29], [34], [35].

## 2.2 삶의 만족도

### 2.2.1 삶의 만족도 개념

삶의 만족도는 Neugarten(1961)에 의해 처음으로 쓰여지고 일반화 되었다. Neugarten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과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67]. Diener(1984)는 삶의 만족은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평가를 포괄하며, 구체적으로 생활 범위 및 전반적인 생활에서 인지적 및 감정적 반응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삶의 만족은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과 과거나 현재는 물론, 미래 차원까지 포함하여 생활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하였다[61]. Lyubomirsky(2001)는 삶의 만족감이란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해 만족하거나, 또는 수용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전체 삶을 위한 필요와 욕구의 충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67].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삶의 조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종합적·주관적

으로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2.2 삶의 만족도의 결정 요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차이를 나타내는 결정요인으로 국적, 연령, 학력, 종교, 거주기간, 직업, 소득, 거주형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들 수 있다.

#### 2.2.2.1 국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자라온 환경이나 언어, 관습,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국적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출신국’에 대한 논의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출신국가별로 상이한 욕구수준에 따라 정책 및 서비스가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신국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6]. 김홍섭(2015)의 연구에서는 동남아 계통의 여성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국인 동포 2~3세, 조선족 등과 얼굴 생김새 등에서 상대적으로 삶의 정착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5], 양다진(2012)은 필리핀과 몽골 출신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카톨릭이 종교인 이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과 필리핀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30]. 권명희(2011)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여성들의 국적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을 통한 이주 후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문화와 본인 국가와의 문화가 유사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비교적 유사한 문화적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일본 국적을 가진 이주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 문화충격, 향수병, 적대감 등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적을 가진 국제결혼 이주여성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3].

#### 2.2.2.2 연령

2013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의 초혼 평균 연령은 남자 35.5세, 여자 27.2세로 초혼인 남녀 연령차는 8.3세로 2011년 남자 36.1세, 여자 26.6세로 연령차가 9.5세로 초혼 연령차가 감소하는 추세로 남자의 연령은 낮아지는 반면, 여자의 연령은 상승하고 있다. 남자가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1년 48.0%에서 2013년 4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58].

여성의 ‘연령’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연구결과[30], [19]와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연구결과[45], [7]가 있다. 이옥선(2009)은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고[32], 박강구(2012)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연령차가 21세 이상의 차이가 13.1%에 달해 연령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고 했다 [19]. 양다진(2012)의 연령의 특성에서는 36세 이상의 이주여성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초기 힘들었던 적응시기를 거쳐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유추했다[30]. 또한 Lehmiller & Agnew(2008)는 여성 연상 커플의 경우 배우자간의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결혼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65], Groot & Brink(2002)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연령이 여성의 연령에 비해서 많을수록 결혼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62].

#### 2.2.2.3 학력

일반적으로 ‘학력’은 사회적 배경의 주요 변인으로 간주되고 잠재적으로 일자리 접근과 소득 확대의 경제적인 측면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적 자원으로 간주된다. 김홍섭(2015)은 학력이 높고 언어적 표현의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고 하였으며[15], 임아리(2012)의 연구에서는 최종학력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44].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삶의 만족이 높다는 연구결과[59],[63]가 있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45]도 있다.

권명희(2011)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3]. 김민경(2011)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자본 수준과 범위, 출신국에 따른 사회구조적 차별, 학력의 국가 간 이동의 부재로부터 사회자본의 불평등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여성의 학력자본은 한국에서 표준화된 인정이 부재하여 취업의 기회로부터 단절된다고 하였다[7]. 즉, 동남아 여성은 학력이 높더라도 낮은 계급적 위치로 하향화되고 한국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종속되며 질 낮은 일자리에서 노동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됨을 시사한다. 또한 Groot & Brink(2002)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수준 차이가 적을수록 여성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62].

#### 2.2.2.4 종교

종교는 개인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 하나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가족, 친지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옥선(2009)의 연구에서는 남편보다 부인들이 종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인들이 부부 및 가족문제에 대해서 인내하고 잘 견디어 내는 것은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홍섭(2015)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삶의 정착에 종교 활동은 안정적인 삶의 추구라기 보다는 개인의 염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15], 양다진(2012)의 연구에서는 카톨릭교를 종교로 하고 있는 이주 여성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다[30]. 김태현 외(2000)는 종교를 가진 노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노인들보다 생활적응력이 높고 소외감도 덜 느껴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했으며[14], 고승덕(1996)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서 종교유무를 보고하고 있다[2].

#### 2.2.2.5 거주 기간

권명희(2011)에 의하면 한국으로 이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이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진다는 것을 밝혔다[3]. 박강구(2012)의 연구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 교육의 필요성과 연관된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는 결혼기간이 길어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한국어가 유창한 어머니들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상대적으로 아동의 언어와 상관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9]. 또한 자녀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인으로서 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6], [44]. 김홍섭(2015)의 질적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의 문제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기간이 오래될수록 자녀교육과 잘살아보기 위한 적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15].

#### 2.2.2.6 직업

제 3세계 여성과 결혼하는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국 가족의 생계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 이주 여성들의 한국생활은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남편의 직업 또한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임선희(2010)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이 높았고,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정책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수록 경제적 자립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국에서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43]. 박신영(2014)은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있어 학습과 일이라는 양 날개는 이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18]. 따라서 한국에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이혼 및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를 촉진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31].

#### 2.2.2.7 소득

삶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적인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실제로 물질적인 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논의에 관하여 상반된 논의들이 있었다. Easterlin(1995)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Bjoumskov(2003), Inglehart와 Klingemann(2000)은 소득이 낮은 국가가 오히려 소득이 높은 국가보다 시민의 삶의 만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60],[21], 소득정도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련이 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9]. 김민경(2011)과 김홍섭(2015)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안정적인 삶의 추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15], 임아리(2012)의 연구에서는 가구 월소득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44].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경험하는 경제적 수준이나 월소득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2.2.2.8 거주형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분포별(도시·농촌) 거주형

태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주로 농촌 지역분포에서는 자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도시지역에는 전세 및 월세의 형태를 지닌 특징을 갖고 있다[57]. 이하늘(2013)의 주택 특성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전·월세 거주자들 보다 자가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삶의 만족도가 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1], 선경자(2010)의 연구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24]. 즉, 거주형태는 경제적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변수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3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인권단체의 보고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피해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27], [56]. 설동훈은 결혼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회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다문화사회 지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25], 권복순과 차보현은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다문화를 인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로 국제결혼에 대하여 문화적 갈등과 언어소통의 문제와 가정폭력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 참여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주여성의 긍정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4]. 박정숙(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문제 갈등이 적을수록, 시댁관계갈등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0]. 채병희(2009)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사회생활만족도, 여가만족도, 지역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한국어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52]. 이재화(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거나 건강상태가 나쁠 때, 국적을 취득하거나 결혼기간이 긴 경우, 시부모와 동거하거나 자녀가 많은 경우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생활만족도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남편과 시부모관계 스트레스를 조절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부모관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지역네트워크 구축이나 피어 카운슬링(peer counseling)등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언하고 있다[40].

종합해 보면, 많은 연구들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문화적 갈등과 언어소통의 문제와 가족구성원과의 적응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처방안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특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3. 연구설계

###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를 알아본 다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1]의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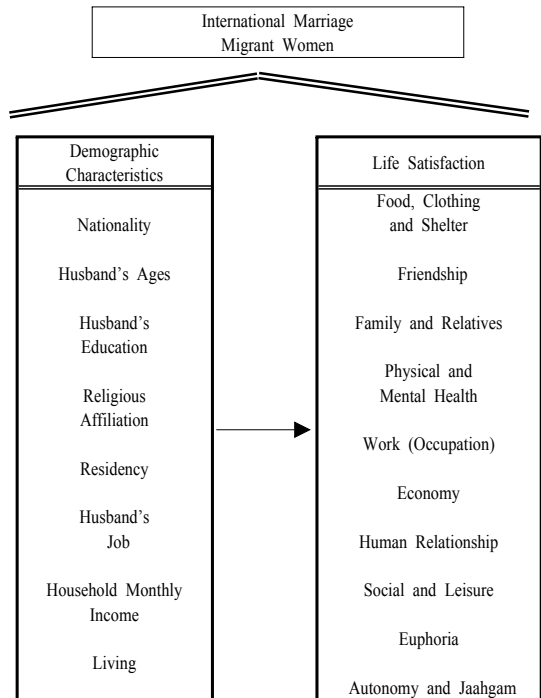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가설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의 연령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의 학력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의 직업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 월소득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형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2 조사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외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20세~60세까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다문화가정, 다문화 빌리지센터, 각 지역 다문화 축제 등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비확률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표본을 구하고,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출신국적 제한은 두지 않았다.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을 위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의 5개 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2013년 4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본 연구자와 교육을 받은 조사원 2명이 실시하여 201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3 측정도구

설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문항, 삶의 만족도 33문항, 총 4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각 항목은 5점 Rikert Scale(매우 그렇다=5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되며, 척도의 점수는 모든 문항들의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측

정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71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Configuration parameters and reliability of life satisfaction

Subareas	Reliability Cronbach's $\alpha$
Food, Clothing and Shelter Domain (5 questions)	.905
Friendship Domain (4 questions)	.867
Family and Relatives Domain (3 questions)	.944
Physical and mental health Domain (5 questions)	.842
Work (occupation) Domain (2 questions)	.835
Economy Domain (2 questions)	.831
Human Relationship Domain (2 questions)	.879
Social and Leisure (4 questions)	.912
uphoria Domain (3 questions)	.932
Autonomy and Jaahgam Domain (3 questions)	.881
Satisfaction of the whole life (3 questions)	.971

### 3.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 검정과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 간의 차이 규명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alpha=.05$ 에서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 전 국적은 중국이 95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 50명(24.9%), 필리핀 22명(10.9%), 태국 9명(4.5%), 캄보디아와 일본 이 각각 7명(3.5%), 몽골 5명(2.5%),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국가가 6명(3.0%)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부부의 연령층에서, 남편 연령은 평균 43.9세로, 40대가 126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30대 39명(19.4%), 50대 30명(14.9%), 60대 이상 2명(1.0%)으로 분포하였으며, 29세에서 70세까지 분포하였다. 부인의 연령은 평균 33.4세로 30대가 80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75명(37.3%), 40대 40명(19.9%), 50대 4명(2.0%) 순으로 나타났으며, 20세부터 54세까지 분포하였다. 남편과 부인과의 나이 차이는 최대 29세까지 차이가 났으며, 평균 10.5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학력은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95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졸업 이상 62명(30.8%), 중학교졸업 30명(14.9%), 초등학교졸업 이하 8명(4.0%)으로 나타났고, 부인은 고등학교졸업자가 98명(4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졸업 이상 60명(29.9%), 중학교졸업 33명(16.4%), 초등학교졸업 4명(2.0%) 순으로 분포하였다. 종교는 남편은 종교가 없는 경우가 94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 46명(22.9%), 불교 26명(12.9%), 천주교 16명(8.0%), 기타 11명(5.5%)으로 각각 나타났고, 부인 역시 종교가 없는 응답자가 80명(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47명(23.4%), 불교 33명(16.4%), 천주교 21명(10.4%), 통일교등 기타 종교 11명(5.5%)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인 82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 63명(31.3%), 10-15년 미만 47명(23.4%), 15년 이상 9명(4.5%)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6년 7개월이었다. 직업은 남편은 자영업종사자가 46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1명(20.4%), 단순노무직 종사자 38명(18.9%), 사무직 종사자 35명(17.4%), 무직 11명(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은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가 139명(69.2%)이었고, 자영업종사자 21명(10.4%), 사무직 종사자와 과학 및 공학의 기술자 9명(4.5%), 서비스직 종사자 7명(3.5%)으로 나타났다. 가정 월 소득 수준은 201-300만원이 60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1-200만원 51명(25.4%), 301만원 이상 48명(23.9%), 101-150만원 29명(14.4%), 100만원 이하 9명(4.5%)으로 각각 분포하였다. 거주 형태는 전세 거주자가 80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 보유자는 57명(28.4%)이었으며, 월세 거주자가 52명(25.9%)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Nationality	China	95	47.3
	Vietnam	50	24.9
	Philippines	22	10.9
	Thailand	9	4.5
	Cambodia	7	3.5
	Japan	7	3.5
	Mongolia	5	2.5
	Etc	6	3.0
Age	Husband		
	30~39	39	19.4
	40~49	126	62.7
	50~59	30	14.9
	More than 60	2	1.0
Wife			
No answer	4	2.0	
20~29	75	37.3	
30~39	80	39.8	
40~49	40	19.9	
50~59	4	2.0	
No answer	2	1.0	
Level of education	Husband		
	Under Elementary school graduate	8	4.0
	Middle school graduate	30	14.9
	High school graduate	95	47.3
	More than College graduate	62	30.8
	No answer	6	3.0
Wife			
Elementary school graduate	4	2.0	
Middle school graduate	33	16.4	
High school graduate	98	48.8	
More than College graduate	60	29.9	
No answer	6	3.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 (continued)

division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Religion	Husband		
	No religion	94	46.8
	Christianity	46	22.9
	Catholic	16	8.0
	Buddhism	26	12.9
	Etc	11	5.5
No answer	8	4.0	
Wife			
No religion	80	39.8	
Christianity	47	23.4	
Catholic	21	10.4	
Buddhism	33	16.4	
Etc	11	5.5	
No answer	9	4.5	
Residence	Less than 5 years	82	40.8
	Less than 10 years	63	31.3
	Less than 15 years	47	23.4
	More than 15 years	9	4.5
Job	Husband		
	Inoccupation	11	5.5
	Self-employed workers	46	22.9
Plant and machine operators or	41	20.4	



	assemblers workers		
	Simple labor job workers	38	18.9
	White-collar workers	35	17.4
	Service industry workers	5	2.5
	Panmaejik workers	7	3.5
	Agriculture, fertility, fishermen	2	1.0
	Science or Engineering technicians	7	3.5
	Professions	6	3.0
	No answer	3	1.5
	Inoccupation	139	69.2
	Self-employed workers	21	10.4
	Plant and machine operators or assemblers workers	1	.5
Wife	Simple labor job workers	8	4.0
	White-collar workers	9	4.5
	Service industry workers	7	3.5
	Panmaejik workers	4	2.0
	Science or engineering technicians	9	4.5
	Professions	3	1.5
Household monthly income	Less than 100	9	4.5
	101-150	29	14.4
	151-200	51	25.4
	201-300	60	29.9
	More than 301	48	23.9
	No answer	4	2.0
Living	Own home	57	28.4
	Charter	80	39.8
	Monthly	52	25.9
	Etc	12	6.0
	Sum	201	100.0

#### 4.2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은 평균 3.4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 별로는 자율성 및 자아감 영역에 대한 만족도(3.64)가

Table 3. International migrant women's life satisfaction

Division	N	M	SD
Totality	201	3.40	.87
Food, Clothing and Shelter	201	3.47	.99
Friendship	201	3.38	.99
Family and Relatives	201	3.56	1.16
Physical and mental health	201	3.22	.90
Work (occupation)	201	3.27	1.03
Economy	201	3.03	1.09
Human Relationship	201	3.50	1.00
Social and Leisure	201	3.34	.99
uphoria	201	3.60	1.08
Autonomy and Jaahgam	201	3.64	1.05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행복감(3.60), 가족 및 친척관계(3.56), 대인관계(3.50), 의식주(3.47), 친구관계(3.38), 사회 및 여가생활(3.34), 일(직업)(3.27), 신체 및 정신건강(3.22) 등의 영역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경제 영역에 대한 만족도(3.03)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4.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 4.3.1 국적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태국(3.84), 몽골(3.76), 필리핀(3.70), 중국(3.52), 베트남(3.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캄보디아 등 기타 국가(2.7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F=4.614, p<.01$ ). 이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태국, 몽골, 필리핀, 중국 국적의 이주여성이 캄보디아 등 기타 국적의 이주여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4.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nationality

Division	M	(SD)	F	p
China(n=95)	3.52	(.84) <sup>a</sup>	4.614	.001
Vietnam(n=50)	3.21	(.92) <sup>ab</sup>		
Philippines(n=22)	3.70	(.72) <sup>a</sup>		
Thailand(n=9)	3.84	(.61) <sup>a</sup>		
Mongolia(n=5)	3.76	(.62) <sup>a</sup>		
Cambodia, Etc (n=20)	2.75	(.82) <sup>b</sup>		

\*\*\* $p<.001$

<sup>ab</sup>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 4.3.2 국제결혼 이주여성 남편의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남편의 연령층이 30대(3.62), 40대(3.42), 50대 이상(3.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남편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826, p<.05$ ). 사후검증 결과 특히 남편이 30대와 40대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50대 이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5.**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husband's ages

Division	M	(SD)	F	p
30~39(n=39)	3.62	(.75) <sup>a</sup>	3.826	.023
40~49(n=126)	3.42	(.88) <sup>a</sup>		
More than 50 (n=32)	3.06	(.91) <sup>b</sup>		

\* p<.05

<sup>a,b</sup>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추가적으로, 남편과의 연령 차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10세 미만(3.57), 10-20세 미만(3.40), 20세 이상(2.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주 여성과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7.746, p<.01$ ). 사후 검증 결과 특히 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10세 미만과 10-20세 미만인 이주여성들이 20세 이상인 이주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6.**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igrant women and husband's age difference

Division	M	SD	F	P
Less than 10 years(n=81)	3.57	(.69) <sup>a</sup>	7.746	.001
10-20 years(n=97)	3.40	(.95) <sup>a</sup>		
More than 20 years of age(n=19)	2.72	(.85) <sup>b</sup>		

\* p<.01

<sup>a,b</sup>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 4.3.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남편의 학력이 대졸 이상(3.83), 고졸(3.43), 중졸 이하(2.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3.166, p<.001$ ).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국제여성 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남편과의 학력 차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이주여성에 비해 남편의 학력이 높은 집단(3.65), 부부의 학력이 같은 집단(3.57), 이주여성의 학력이 남편에 비해 높은 집단(2.96)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1.097, p<.001$ ).

**Table 7.**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husband's education

Division	M	SD	F	P
Middle school or less(n=38)	2.73	(.99) <sup>c</sup>	23.166	.000
high school graduation(n=95)	3.43	(.82) <sup>b</sup>		
More than College graduate (n=62)	3.83	(.54) <sup>a</sup>		

\*\*\* p<.001

<sup>a,b</sup>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c)

사후검증 결과, 특히 이주여성에 비해 남편의 학력이 높은 집단과 부부의 학력이 같은 집단(3.57)이, 남편에 비해 이주여성의 학력이 높은 집단(2.96)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8.**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igrant women and husband's education difference

Division	M	SD	F	P
High wife's Education(n=49)	2.96	(.98) <sup>b</sup>	11.097	.000
Equal Education of the couple(n=92)	3.57	(.79) <sup>a</sup>		
High husband's Education(n=49)	3.65	(.71) <sup>a</sup>		

\*\*\* p<.001

<sup>a,b</sup>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 4.3.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종교가 있는 집단(3.51)이 종교가 없는 집단(3.23)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t=2.217, p<.05$ ), 종교가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religious affiliation

Division	M	(SD)	t	p
Having a religion(n=112)	3.51	(.86)	2.217	.028
No religion (n=80)	3.23	(.89)		

\* p<.05

<sup>a,b</sup>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4.3.5 거주기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한국 거주기간이 5년 미만(3.55), 10년 이상(3.43), 5-10년 미만(3.19)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097, p<.05$ ). 사후검증 결과 한국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5-10년 미만인 이주여성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10.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residency

Division	M	SD	F	P
Less than 5 years (n=82)	3.55	(.87) <sup>a</sup>		
5-10 years (n=63)	3.19	(.96) <sup>b</sup>	3.097	.047
More than 10 years (n=56)	3.43	(.72) <sup>ab</sup>		

\* $p<.05$

<sup>a,b</sup>: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4.3.6 국제결혼 이주여성 남편의 직업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사무직(3.82), 판매 등 기타 직(3.47), 자영업 종사자(3.44), 단순노무직(3.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남편이 직업이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삶의 만족도(2.77)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F=3.919, p<.01$ ).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특히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사무직 종사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남편이 단순노무직이나 무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남편이 직업이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다른 직업군의 남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Table 11.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her husband's job

Division	M	(SD)	F	P
Self-employed workers (n=46)	3.44	(.92) <sup>ab</sup>		
Plant and machine operators or assemblers workers (n=41)	3.32	(.87) <sup>ab</sup>		
Simple labor job workers (n=38)	3.17	(.96) <sup>bc</sup>	3.919	.002
White-collar workers (n=41)	3.82	(.59) <sup>a</sup>		
Service industry workers (n=21)	3.47	(.80) <sup>ab</sup>		
Inoccupation (n=11)	3.47	(.80) <sup>ab</sup>		

\*\* $p<.01$

<sup>a,b</sup>: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4.3.7 가정 월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이 301만원 이상(3.93), 201-300만원(3.43), 200만원 이하(3.1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5.979, p<.001$ ). 사후검증 결과 가정 월 소득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2.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household monthly income

Division	M	SD	F	P
Less than 2,000,000won(n=89)	3.10	(.88) <sup>c</sup>		
2,010,000-3,000,000 won(n=60)	3.43	(.87) <sup>b</sup>	15.979	.000
More than 3,010,000won(n=48)	3.93	(.60) <sup>a</sup>		

\*\*\* $p<.001$

<sup>a,b</sup>: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4.3.8 거주형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거주형태에 따른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3.77)이 전·월세나 기타 형태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3.2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 $t=3.846, p<.001$ ), 자신의 집 소유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3.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Living

Division	M	(SD)	t	p
Own home (n=57)	3.77	(.77)		
Charter, Monthly, Etc(n=144)	3.26	(.87)	3.846	.000

\*\*\* $p<.001$

<sup>a,b</sup>:Duncan's multiple range test(a>b)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

았다. 또한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의 정책과 실천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유의미한 통계는 선행연구 [7], [15], [38] 연구와 일치하며 연구자의 국가에 따른 만족도는 태국이 높게 나타났으나 충남 지역을 연구한 [13]의 결과에서는 중국 여성 만족도가 제일 높았으며, 강원도 철원 지역을 연구한[38]의 연구에서는 필리핀 여성의 만족도가 제일 높았다. 이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출신 국적이 상이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출신 국가별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사회구성원이라는 통합된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로 나아가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 [44]와 [54],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과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해 주어야함을 시사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 동기는 경제적인 향상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여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의 선택’으로 정리되었으며[33],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남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은 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신국에서의 역동적인 삶과 진취적인 사고의 강점을 살려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여 한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짐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함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1].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종교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 [11], [3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종교가 개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비롯한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자국민 혹은 동일문화권의 외국인들을 주로 만나는 장소가 종교 시설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 등에서 종교관련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정혜(2009)의 연구에서는 무교

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이는 2012년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결혼 건전화 정책에 대한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13].

넷째, 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부의 연령차이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11]의 연구에서 남편과 나이차이가 클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며 [19]의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차가 큰 국제결혼 가정의 평등한 부부관계와 서로의 이해증진을 위한 부부상담, 남편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을 포함한 전문화된 가족상담 서비스와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46], 더불어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관에 배치하여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가나 배우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4], [41]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28]의 연구에서 주택소유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가 자가 아닌 경우 거주에 대한 경제적 지출로 인한 월 소득 수준이 낮아져 가정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주택사업 등의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자용성 및 자아감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15], [2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1], [36], [44]의 연구에서도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의 연구 결과는 삶의 만족도 수준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있어 낙관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38]. 또한 [1]의 연구에서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여성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국가출신별, 또는 생활의 터전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출신 국가별, 도시와 농어촌별로 구분하여 자아존중감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일반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또한 양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표본추출 제한성이다. 비확률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한 표본의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일반화 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스스로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질문지를 연구자 및 조사원이 직접 배부하였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익숙하지 않은 질문의 내용 및 솔직한 대답 대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으로 응답의 신뢰도에 문제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 및 다문화 지원기관 등의 서비스에서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연구조사 및 국적, 연령, 환경적 조건을 포괄하는 관계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에서 남편의 역할과 지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남편도 아내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가족들과의 적응을 위해 실제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남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H. Ga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 focusing on the social capital",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2] S. D. Go, S. H. Jo,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Korea Gerontology, Vol.17, No.2, 1997.
- [3] M. H. Kwon, "Effects of Immigrant Married Women's Culture Acculturative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ed on Psychosocial Resources' Mediated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Graduate School of Chongju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1.
- [4] B. S. Gwon, B. H. Cha, "The Impact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sian Housewives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8, No.3, 109-134, 2006.
- [5] K. O.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o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Mokpo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6] G. W. Kim,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Sunchang Aroun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2015.
- [7] M. K. Kim,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of asian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Catholic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8] S. R. Kim, "Studies on Marriage motive of Japanese wives who live in Korea", Korea Institute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Vol.42 No.-, pp.241-258, 2007.
- [9] Y. O. Kim, "A Study of Anxiety on Interracially married women : Philippine Women in S City in the Kyung-Ki Province", Baekseok University Christian School, Doctoral thesis, 2012.
- [10] O. N.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Family and culture, Vol.18 No.3, pp.63-106, 2006.
- [11] U. J. Kim,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ffecting depression of married female migrants in Korea : Focused on Gyeonggi-Do and Chung-Nam (Cheon-Ahn. A-San)", Gangna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12] Y. S. Kim, M. J. Kim, G. S. Han, "Experience cultural conflict and policy challenges for the promotion of communication immigrant women",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Vol.2006, No.06-02-07, pp.1-335, 2006.
- [13] J. H. Kim, "A Study on Quality of Lif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Seoul City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4] T. H. Kim, D. S. Lee, H. J. Chung, "Related Variables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Chonbuk-do Province", Korea Gerontology, Vol.20, No.2, 2000
- [15] H. S. Kim, "The Live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in Korea : Factors for Social Adjustment and Success" , Dong-A University International School,
- [16] H. N. No,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the Chinese women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and settled down in Korea: Focusing on the Acculturation Patterns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Wome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17] Mandakhvayar. B,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Marital Satisfaction in effects of Acculturation Attitude : Focused on Marriage Migrant Women of Mongolia",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18] S. Y. Park, "The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 during the Employment Process of Female Marriage

- Immigrants : A Grounded Theor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4.
- [19] G. G. Park "Studies on Marriage and Marital Satisfaction Immigrant Welfare Needs", Daegu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2.
- [20] J. S. Park, "(A)Study on the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for the Immigrated Wome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21] H. B. Park, H. C. Lee,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s' Life Satisfaction: Socio-Economic Factors? or Social Capital Product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17 No.3, 2005.
- [22] H. K. Park, "The Study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National Identity for Foreign Femal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Sungkyu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2012.
- [23] Boti Fung, Huen, "The Effects of Cultural-Psychological Factors on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e Multicultural Family", Chosu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24] G. J. Sun, "The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migrant women: Focus on marriage-migrant women of Gwang-Ju city", Chosu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5] D. H. Seol, Y. T. Kim, H. M. Kim, H. S. Yun, H. K. Lee, G. T. Im, G. S. Jeong, Y. S. Ju, G. S. Han, "Foreign wives' life in Korea :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uture Institute of workers, pp. 339-349, Gyeonggi-do(Gwacheon), 2005.
- [26] D. H. Seol, H. S. Yo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Countries of Origin : Socioeconomic Adaptation and Welfare Policy for Immigrant Women on Marriag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4 No.2, 2008.
- [27] R. M. So, "A Study on The Situation of Marital Migrant Women's Rights and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in Korea", Chosun law journal, Vol.16, No.2, pp.1-32, 2009.
- [28] J. S. Song, "Elderly leisure activities impact on life satisfaction",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1996.
- [29] R. H. Shin. "Family, work and identity of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 Uzbekistan & Philippine women's life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30] D. J. Y,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through of gender-sensitivity as a moderating effect",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2.
- [31] I. S. Yang, M. S. Min,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nd Their Employment Policies",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Vol.2010, No.3, 2010
- [32] O. S. Lee, "Satisfaction with life based on leisure activity of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 focused on Seoul elderly welfare center", The Graduate School Tourism Sej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33] E. J. Yu, "(A) study on multicultural policy through marriage migrant Women's perspective", Hallym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1.
- [34] H. S. Yun, "Conflicts and Adjustment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Men: Filipina Wives in Rural Korea", Local communities and local culture, Vol.8 No.2, pp. 299-339, 2005.
- [35] K. Y. Lee, "Migr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Monthly Welfare Trends, Vol. 53,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ocial Welfare Committee.
- [36] S. H. Lee,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Migrant Woman in Korea",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37] S. J.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Men : Verification of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Marital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l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4.
- [38] Y. H. Lee, "Satisfaction of the international immigrant women living : Cheorwon, Gangwon-do around the area", Daej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39] Y. G. Lee.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Satisfaction for Women Marriage Immigrants-Focusing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Konkuk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1.
- [40] J. H. Lee, "Effects which social support has o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family relation stress of women in multi-cultural homes", University of Daegu, University of Daegu, Doctoral thesis, 2011.
- [41] H. N. Lee, "Economic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global phenomenon of hypergamy,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42] C. B. LEE,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Vietnamese Marriage of Female Immigrants", South Korea Foreign Langua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15.
- [43] S. H. Lim,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independ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Eastern University Information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0.
- [44] A. R. Lim. "A Study on Family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Soongsil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2.
- [45] E. A. Jang,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Cultural Identity and the Social Relation Network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46] M. S. J,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Under Interracial Marriage : Focusing on Their Spouses Awareness", Soon Chun H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2011.
- [47] K. S. Chung, J. E. Ha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2 No.2, pp.87-114, 2009.

[48] Y. D. Jo, "Educat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2006.

[49] Y. R. Cho, "Marital Conflicts,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Marital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50] Jjeusi motto Toshiko, "(The) resistance and strategies of migrant women for the construction of diasporic subjectivity :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filipinas in Korea", Sungkonghoe school graduate, doctoral thesis, 2006.

[51] J. S. Choe, "Tashk of substantialization of Teaching Korean in the Multi-Cultural era", Double Linguistics, vol.37 No.- pp.287-316, 2008.

[52] B. H. Chae, "(The) study of the Social-Cultural Accultur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 Focused on the Area of Mun-Kyeong City",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53] O. H. Chae, D. A. G. Hong, "Self-esteem and improve social adaptability training for health household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immigrant women", South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10, No.3, South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006.

[54] S. Y. Ha, "Marital Satisfac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Gimhae,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Master's thesis, 2012.

[55] G. S. Han,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Korea Cultural Anthropology, Vol.39 No.1, pp.195-219, 2006.

[56] G. Y. Han, "Sociological analysis of migrant women and the feminiz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3rd Anniversary Symposium Kit, 2004.

[57] "International Survey on migrant women and health and welfare support policy measur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58] "2013 marriage Divorce statistics", Statistical Office, 2014.

[59] Banachflower and Oswald,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7487, 2000.

[60] Bjoumskov, Christian,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 pp.3-16, 2003.

[37]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542-575, 1984.

[61]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542-575, 1984.

[62] Groot & Brink, "Age and Education Differences in marriages and Their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pp.153-165, 2002.

[63] Helliwell, John, F, "Social Capital, the Economy and Well-Being in Keith Banting, Andrew Sharpe", France St-Hilaire(eds.), The Review of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Montreal :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Inglehart, 2001.

[64] Ronald & Klingemann,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d Diener & Eunkook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The MIT Press, 2000.

[65] Lehmler & Agnew, "Commitment in age-gap heterosexual romantic relationships: A test of evolutionary and socio- cultural prediction", Psychology off Women Quarterly 32: pp.74-82, 2008.

[66] Lyubomirsky, S,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6, pp.239-249, 2001.

[67]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pp.134-143, 1961.

[68] Oswald, Andrew, J,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997.

[69] H. S. Jang, "Adult psychology : adult development, aging & death", Seoul: Bakyoungsa.

[70] Standards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 1999.

[71] Hanbe home(2012. 4). cafe.daum.net/nhung., 2012. 4.

**우 영 희(Young-Hee Woo)**

**[정회원]**



- 1999년 2월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기영어교육(조기영어교육 학석사)
- 2012년 8월 : 서울사회복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1990년 9월 ~ 현재 : 서울신성초등학교 교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아동복지경영, 벤처경영

**하 규 수(Kyu-Soo Ha)**

**[종신회원]**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 졸업(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 졸업(LL.M.)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 변호사-미국 연방변호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창업, 벤처경영, 경영전략